

# 남도의병의 중심 보성군 민간 호국 선양사업 활발

### 홍암나철기념사업회, 中 화통사와 MOU 등

의병의 고장 보성군에서는 민간주도 호국 선양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홍암나철선생선양사업회(회장 박오제)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자비로 중국에 있는 나철선생 묘역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에는 중국 화통사와 MOU를 체결하여 친선축구대회 개최 및 공연 관람 등 중국 지방정부와 다양한 문화·체육 교류행사를 추진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위상을 중국에 알리는 역할에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사업회는 중국 묘역관리 뿐만 아니라 홍암 나철 선생의 생애전집발간, 유품 등 수집·발굴, 우리역사 바

로알기 골든벨 행사, 추모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여 홍암나철선생의 구국이념과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홍암나철 선생은 전남 보성에서 출생해 1909년 대종교를 창시했으며, 대종교는 일제강점기 '정신적 의미의 나라'로 주권을 잃은 조선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점이 됐다. 또한, 무오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9명의 독립지사 중 25명이 대종교 출신 인사일 만큼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전반에 나철 선생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보성군은 2016년 나철선생 서거 100주기에 맞춰 홍암나철기념관을 선

생의 고향인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금곡마을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도의병의 아버지 죽천 박광전선생 기념관, 민족독립운동의 선구자 서재필 기념공원 등을 조성했다.

또한, 나철선생을 소재로 한 '단군의 아들', 전방삭 의병장 '꽃이피니 열매 맺혔어라', 선거이 장군의 '칼과 술' 등 보성출신 의병장들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을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죽천박광전선생기념사업회에서도 보성군에서 조성중인 죽천박광전기념관에 시도문화재 자료 제206호 보성죽천선생 문집 및 유묵복판 등 43건 232점을 활용하여 전시, 연출을 위한 준비로 개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인규일 기자

## 고흥 유자, 유럽수출 협약 체결

### 체코·이탈리아 진출...유럽시장 교두보 확보 성과



고흥군은 1인당 군민소득 3천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고흥 농수특산물 판매에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최근 농수산물의 내수 부진, 가격 하락 등으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판로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송귀근 군수 행

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달 25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고흥 관내 일본 수출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수출 유통망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흥군은 지난 7일부터 송귀근 군수를 단장으로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을 구성하여 고흥의 제1명품인 유자 수출을 위해 체

코와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은 체코에서 크로스 카페(Croscafe)사 등 2개사와 미화 80만 달러, 이탈리아에서는 에세필(Essefil) SRL사 등 2개사와 미화 110만 달러를 협약하는 등 총 190만 달러(23억원)의 유자상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또한, 이탈리아 '산비토로 카포' 시(市)에서 현지 유통업자 밴다 10여명을 초청하여 고흥 유자상품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유자 음료와 유자 칩 등 만들어 현지인 1,500여명에게 무료 시음토록 하는 관측행사를 추진하였다.

유자 관측행사에는 '산비토로 카포' 시(市)의 기우세페 페리아노 시장이 방문하여 행사 요원들을 격려하고, 송귀근 군수와 만남 시간을 가진 후, 양 시군 홈페이지에 관광정보를 링크하기로 합의하였다.

송귀근 고흥 군수는 체코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터키와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고흥 유자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유럽 시장 확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 여수시, 박물관 유물 확보 '박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협약

여수시가 1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립박물관 유물 확보에 박

차를 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이규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양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 여수시립박물관 개관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등에 상호 협력한다.

이규영 소장은 "남해안 해양중심인 여수시의 박물관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고려시대 마도 3호선 출수유물 등 여수해양 유물연구에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은 "박물관건립에 적극적 업무협력과 2026년 섬박물관 개최를 위해 섬연구 등 해양문화연구에 많은 조언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발굴과 함께 섬 문화유산 조사·연구, 고신박 복원, 문화재보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목표와 태안에 있는 본관과 전시관 등에 유물 약 5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순천시 기관장들까지 합세한 '3대 시민운동' 눈길

순천시가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3대 시민운동에 유관 기관장들까지 합세하여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대 시민운동은 '순천방문의 해 북-up', '미·인(미소+인사)', '일회용품 쓰레기 zero 운동'으로 시민 상호 배려와 존중, 기초질서 회복을 통해 더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지역 사랑 운동이다.

시는 3대 시민운동에 시민뿐만 아니

라 관내 유관 기관까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장 릴레이를 시작했다.

기관장 릴레이는 3대 시민운동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샷을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홍보문을 게시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를 지목하여 확산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허석 순천시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구정회 순천소방서장, 정봉수 순천교도소장 등 14명의 기관장들이 릴레이 운동을 전개해왔고, 지난 5일

에는 순천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이 15번째 주자로 함께했다.

김원진 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최백근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을 지명하면서 "준법지원센터 직원 모두가 3대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며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시의 주인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곡성군, 드론 비행 경진대회 참가자 접수

곡성군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제1회 곡성 드론비행 경진대회 참가자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2019 곡성드론과학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드론 페스티벌에서는 드론비행 경진대회, 드론 조정 체험 및 전시, 드론 군집 비행쇼, 미니 드론 만들기, 드론 킬링, 드론 산업 발전현황 등 드론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

특히 드론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펼치는 드론 비행 경진대회는 이번 드론 페스티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총 300만원이 대회상금으로 걸려 있으며, 현재 초등부 30팀, 중등부 30팀,

일반부 50팀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대회 임상자는 곡성군에 소재한 전남 과학대학교 신입생 선발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기체 규격 등 대회 규정을 자세히 숙지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e10614@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제출 후에는 전화 (061-360-5448)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곡성군은 드론 페스티벌을 통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드론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곡성=김광희 기자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부하고, 규제혁신 필요성과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례들을 설명하며,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등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홍보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구례군, '대표음식' 발굴 육성 영업주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

구례군은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구례군 대표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식품정책 영업주 대상으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오는 20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구례군 대표음식'이 필요하다는 지속적 요구와 음식, 먹방 중심의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으로 지역생산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보급 할 목

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은 식품정책 영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마인드 함양교육과 용역연구 방향 설명·제시 및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영업주 의견 청취를 함께 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규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지원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